

집합주택의 실공간구성을 위한 거주자 행태연구

A Behavioral study for the Space Organization of Dwelling Unit of Apartment

조 성 희*

Cho, Sung-huei

허 영 숙**

Huh, Yong-sook

Abstract

The behavioral-related environmental study for multifamily housing is needed to develop the quality of unit floor plan in terms of user comfort and needs.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ving style and housing needs in terms of interaction between the users behavior pattern and organization of physical home space. For the purpose, the field experiments in Pusan, have been carried out with 318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s by plan types(2BL, 3BL, 4BL, 5BL) which were classified by number of bedrooms. The dwelling space usage behavior(room use pattern and furniture usage pattern) and the space adjustment behavior(physical modification of space and preferred space adjustment attitude) were examined and analyzed.

I. 연구목적 및 배경

주공간은 가족과 개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을 담는 생활장소로서, 주생활과의 대응관계가 성립되는 곳이다. 따라서 주택계획은 주공간의 계획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생활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계획이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더불어 소비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와 새로운 주택유형인 집합주택에서의 거주경험 등으로 전반적인 주거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주공간에 대한 거주자

의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계획은 거주자의 다양한 주요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합주택으로 현재까지 공급되어온 대부분의 평면은 몇가지 유형으로 패턴화되어 규모별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성희 등, 1987; 박길용, 1990; 우동주 등, 1991; 김수암 등, 1992). 이는 집합주택의 단위평면계획이 가지는 공공성과 집합성이라는 건축계획상의 한계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거주자들의 다양한 주생활요구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주공간이 주생활을 담는 용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나은 주택계획은 생활과 공간의 대응을 목표포함으로써 주공간 계획을 위해서는 거주자

* 정희원, 부산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박

** 정희원, 동래여전 가정과 조교수

의 다양한 주생활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거주자로서 가족과 주공간간의 상호관계는 거주공간이 거주자의 환경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자가 수동적 태도로서 부적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공간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간사용을 통해 다양한 실사용 및 개조 행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주자들의 주생활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 주택의 공간구성에 따른 적응실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시행된 집합주택 주거 환경에 대한 거주후평가연구¹⁾ 결과 침실수를 기준으로한 평면형에 따라 주거만족도 및 주거 환경평가요소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집합주택의 공간구성을 침실수를 기준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공간과 주생활간의 대응 관점에서 거주가구의 생활상을 파악하려는 실증적 행태 연구로서, 집합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평면형²⁾에 따라 주생활 실태와 요구 특성을 주공간 사용행태와 실조정 행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주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계획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집합주택 거주가구의 생활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침실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평면형에 따라 그들의 주공간 사용행태와 실조정 행태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려는 실증적 행태연구이다. 이 때, 생활상을 규명하기 위한 주공간 사용행태와 실조정 행태는 가족들의 만족스러운 주생활을 위해 생활과 주공간의 대응 측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적응실태로서, 주공간 사용행태는 각 실의 사용과 가구사용행태를

통해 파악하고, 실조정 행태는 주거공간 개조 행태 및 크기 조정태도를 통해 파악한다. 특히, 실조정 행태를 조명하기 위해 시도되는 크기조정태도의 조사는 거주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별로 선호하는 면적 배분에 대한 요구 태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크기조정 태도의 파악은 본 연구의 목적이 가지는 평면형에 따른 생활과 공간간의 대응관계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이며 상대적인 선호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선호비교(trade-off)를 시행한다. 이는 실제로 거주자가 현실세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선택은 제약적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제약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인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거주자의 선호 태도를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Robinson, 1987).

본 조사는 선행 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완성된 설문지에 가구별 단위평면도를 부착하여 1992년 5월 8일부터 1992년 6월 5일 사이에 시행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부산시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2침실형(2BL) 70가구, 3침실형(3BL) 164가구, 4침실형(4BL) 45가구, 5침실형(5BL) 39가구로 총 318가구³⁾이다.

III. 평면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 행태

3-1. 각 실의 사용 행태

평면형에 따라 각 실⁴⁾의 사용을 사용자중심

2) 평면형은 독립된 거실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실수에 따라 2침실형(2BL), 3침실형(3BL), 4침실형(4BL), 5침실형(5BL)으로 구분하였다.

3) 조사대상 아파트의 개요(지역, 층수, 규모) 및 거주가구특성(가족수, 가족유형, 교육수준 등), 그리고 거주특성(주택소유유형, 거주동기 등)은 허영숙·조성희(1994, pp.63-65)에 제시되어 있으며 평면형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평면형 규모(평)	2BL	3BL	4BL	5BL
분양면적	22-25	27-34	33-47	48-54
전용면적	18.48-19.73	22.36-25.67	31.02-40.15	40.78-46.20

4) 평면형에 따른 실구성에서 실구분은 침실수에 따른 구분없이 전면 발코니에 면한 제일 큰방을 방1로 명명하고, 방크기 순서에 따라 방2 부터 방5로 구분 명명하였다.

1) 허영숙·조성희, 부산시 집합주택계획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거주후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 1994. pp.61-72.

으로 조사·분석하였다(표1). 2BL에서 방1은 부부 사용(80.0%), 방2는 자녀사용(75.7%)과 침실이외의 용도(17.2%)로 나타나 방1은 주로 부부침실, 방2는 자녀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BL에서는 방1은 부부사용(91.5%), 방2는 자녀사용(82.3%), 방3은 자녀사용(73.2%)과 침실이외의 용도(23.1%)로 나타나 2BL과 유사하게 부부실과 자녀실 사용이 주로 파악되었다.

4BL의 경우 방1은 부부사용(80.0%), 방2는 자녀사용(62.2%) 및 부부사용(15.6%)과 침실이외의 용도(13.3%)로 나타났으며, 방3은 자녀사용(77.7%) 및 침실이외의 용도(13.3%)로, 방4는 침실 이외의 용도(55.5%)와 자녀사용(44.4%)으로 나타나 방 1을 제외한 실에서 침실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이 파악되었다. 5BL의 경우 방1은 부부사용(92.3%), 방2는 부부사용(61.5%)과 자녀사용(33.3%)으로 나타나 다른 평면형에 비하여 부부사용이 자녀사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3은 자녀사용(98.8%), 방4는 자녀사용(58.9%)과 침실이외의 용도(20.5%) 및 부부사용(15.4%)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5는 침실이외의 용도가 66.6%로 나타나, 4BL의 방4에서와 같이 침실보다는 침실이외의 실공간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평면형에 따른 각 실의 사용 빈도 (%)

실	구분	부부실	부부+ 자녀실	자녀실	조부모실	침실이외 의 용도
		방1	2BL 56(80.0) 3BL 150(91.5) 4BL 36(80.0) 5BL 36(92.3)	10(14.3) 7(4.3) 2(4.4) 1(2.6)	4(5.7) 4(2.4) 1(2.2)	3(1.8) 6(13.3) 1(2.6)
방2	2BL 3(4.3) 3BL 7(4.3) 4BL 7(15.6) 5BL 24(61.5)	1(1.4) 1(0.6)	53(75.7) 138(82.3) 28(62.2) 13(33.3)	1(1.4) 7(4.3) 4(8.9) 1(2.6)	11(17.2) 14(8.6) 6(13.3) 1(2.6)	
방3	3BL 1(.6) 4BL 2(4.4) 5BL 1(2.9)		120(73.2) 35(77.7) 35(98.8)	5(3.0) 2(4.4) 1(2.9)	38(23.1) 6(13.3) 2(5.8)	
방4	4BL 5BL	6(15.4)		20(44.4) 23(58.9)	2(5.1)	25(55.5) 8(20.5)
방5	5BL			6(15.4)	6(15.4)	26(66.6)

이러한 실사용은 방1이 평면형에 따른 구분 없이 부부실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방2 부터는 평면형에 따라 실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BL의 방2와 3BL, 4BL의 방2, 방3, 그리고 5BL의 방3, 방4는 자녀실로 사용되고 있어 자녀실로 2개의 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 때 2BL은 실수의 제약에 의해 1개실을 자녀실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녀 2인 이상 사용비율(51.4%)이 1인사용(24.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실수가 많아짐에 따라 5BL은 평면구성에서 방1과 방2를 연결시켜 부부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방2의 실사용에서 부부사용(61.5%)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부부가 2개 실을 사용하는 사례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실의 필요 개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구별 사용실수는 3BL을 기준으로 2BL은 면적제약에 따른 실수부족을 자녀실의 공동사용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4BL의 방4와 5BL의 방5는 여분의 방이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평면형별 거주가구의 희망하는 실의 개수를 조사하였다(표2). 평면형에 따른 희망 실수는 각 평면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 < .01$). 희망 개실수의 평균은 2BL 3.1개(S.D.=0.48), 3BL 3.7개(S.D.=0.60), 4BL 4.5개(S.D.=.84), 5BL 4.5개(S.D.=0.91)로 나타나, 평면형별로 가족수⁵⁾와 유사한 개실의 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현거주 주택의 실수보다 더 많은 실을 원하고 있으나 표1에서와 같이 방1은 부부사용을 함으로써 가족수에 따른 개실수는 여분의 방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4BL의 방4와 5BL의 방5의 사용이 침실이외 용도로 나타남으로써 더 많은 실수를 희망하는 것이 반드시 침실수의 증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공간이나 서재같은 침실이외의 기능을 위한 실의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5) 평면형별 가족수는 2BL, 3BL은 3.6인이고, 4BL, 5BL은 4.5인으로 파악되었다(허영숙·조성희, 1994, p.64).

표 2. 평면형에 따른 희망 개실의 수

평면형(가구수)	희망하는 개실의 수 (S.D.)
2BL(70)	3.1 (.48)
3BL(164)	3.7 (.60)
4BL(45)	4.5 (.84)
5BL(39)	4.5 (.91)
계 (318)	3.8 (.81)
F 값(p<.01)	53.40

3-2. 가구사용행태

가구는 인간의 행동과 공간을 대응시키는 수단이며 실기능 및 실 크기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의 제반요구에 따라 그 종류와 수가 다양해지고 그 크기 또한 커지면서 주공간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입식 가구는 그 크기 만큼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가용면적(可用面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평면형에 따른 가구사용행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입식 가구인 침대, 소파, 식탁 보유 정도와 자녀실의 가구보유 실태를 분석하였다.

3-2-1. 입식 가구 보유 실태

침실의 대표적 입식 가구인 침대의 보유는 (표3)에서처럼 평면의 크기에 따라 평균침대갯수가 2BL이 0.73개, 3BL은 1.16개, 4BL에서는 1.95개, 5BL이 2.31개로 높게 나타났다. 2BL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부사용보다 자녀사용에서 높게 나타나 자녀실의 높은 입식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2BL에서 방2의 침대보유율이 낮게 나타남은 실수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평면형에 따른 실별 침대 보유율 빈도(%)

평면형 침실	2BL	3BL	4BL	5BL
방1	32(45.7)	72(43.9)	15(33.3)	7(17.9)
방2	19(27.1)	71(43.3)	27(60.0)	30(76.9)
방3		48(29.3)	27(60.0)	31(79.5)
방4			19(42.2)	20(51.3)
방5				2(5.1)
평균(개)	0.73	1.16	1.95	2.31

거실·부엌의 입식 가구로 소파와 식탁 보유율은 (표 4)와 같다. 거실용 탁자의 평균보유갯수는 평면형이 커짐에 따라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파는 2인용보다 1인용과 3인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3인용은 평면형이 커짐에 따라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탁은 평균 보유갯수가 0.98개로 평면형에 따른 구분없이 거의 전부 가지고 있으며, 식탁용 의자는 2BL 3.36개, 3BL 3.96개, 4BL과 5BL이 4.5개로서 평면형에 따른 가족수(2BL 3.5인, 3BL 3.9인, 4BL 4.6인, 5BL 4.4인)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평면형에 따른 침실의 입식화를 부부실과 자녀실로 구분해 볼 때, 부부실은 크게 2BL·3BL·4BL/5BL의 2그룹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5BL의 부부공간(안방과 부부침실) 구성이 실사용뿐 아니라 입식가구 사용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실은 평면형이 커질수록 입식화가 많이 이루어짐을 파악할 수 있다. 평면형에 따른 거실·부엌의 입식 가구 사용은 부엌보다 거실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평면형이 커질수록 높은 입식 가구 보유율을 가지며 그 구성에서도 소파 1인용과 3인용, 그리고 탁자를 한 set로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2-2. 자녀실의 가구 보유 실태

기존 집합주택 평면형의 경우 방1은 다른 침실에 비해 매우 크게 계획하고 나머지 실들은 전체 주택규모에 맞추어 나누는 방식으로 크기를 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실의 사용행태분석(표 1 참조)결과 방1은 부부가 사용함으로써 부부 침실겸 안방이 되고 있으며, 방2, 방3은 자녀실로, 4BL, 5BL에서의 방4, 방5도 적지 않은 家口가 자녀실로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크기의 방들을 자녀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분석은 자녀실 크기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

표 4. 평면형별 거실, 부엌의 입식 가구의 보유

평균(S.D.)

가구	평면형	2BL	3BL	4BL	5BL	평균	F 값	유의도
거실용 탁자		0.50(0.53)	0.79(0.49)	1.13(0.34)	1.08(0.53)	0.81(0.53)	19.96	●
소파(1인용)		0.49(0.96)	0.59(0.87)	0.49(0.73)	0.97(0.96)	0.60(0.89)	2.97	○
소파(2인용)		0.14(0.43)	0.23(0.46)	0.47(0.69)	0.41(0.55)	0.27(0.27)	5.04	●
소파(3인용)		0.59(0.50)	0.78(0.46)	0.87(0.59)	0.95(0.22)	0.77(0.48)	6.23	●
식탁		0.97(0.24)	0.98(0.13)	1.04(0.21)	0.95(0.22)	0.98(0.19)	2.20	
식탁용의자		3.36(1.24)	3.96(0.89)	5.00(0.88)	4.41(0.13)	4.03(0.15)	24.95	●

● p < 0.01 ○ p < 0.05

하려는 것이다. 평면형에 따른 자녀실⁶⁾ 가구는 <표 5>와 같다.

장난감 상자(40.0%)를 제외하고는 평면형이 커짐에 따라 가구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책상(89.9%), 책장(82.7%), 옷장(66.7%), 의자(66.0%), 침대(58.8%), 옷걸이(57.5%)등이 자녀실의 기본적 가구로 되어 있으며, 특히 피아노와 같은 대형악기도 높은 보유율(49.4%)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실 가구 보유실태는 자녀실 보유가구의 다양한 종류와 양을 구체화함으로써 그것들의 비치와 사용에 따른 점유면적이 실크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평면형별 자녀실의 가구보유율

빈도(%)

	2BL	3BL	4BL	5BL	전체
옷장	39(55.7)	105(64.0)	37(82.2)	31(79.5)	212(66.7)
이불장	24(34.3)	67(40.9)	22(48.9)	17(43.6)	130(40.9)
삼층장	1(1.4)	4(2.4)	6(13.3)	1(2.6)	12(3.8)
서랍장	28(40.0)	60(36.6)	26(57.8)	20(51.3)	134(42.1)
침대	21(30.0)	99(60.4)	31(68.9)	36(92.3)	187(58.8)
책상	52(74.3)	150(91.5)	45(100.)	39(100.)	286(89.9)
책장	51(72.9)	135(82.3)	42(93.3)	35(89.7)	263(82.7)
피아노	19(27.1)	81(49.4)	32(71.1)	25(64.1)	157(49.4)
장난감상자	28(40.0)	56(34.1)	8(17.8)	7(17.9)	99(31.1)
컴퓨터책상	13(18.6)	50(30.5)	22(48.9)	13(33.3)	98(30.8)
탁자	8(11.4)	21(12.8)	14(31.1)	4(10.3)	47(14.8)
의자	38(54.3)	108(65.9)	32(71.1)	32(82.1)	210(66.0)
오디오	11(15.7)	37(22.6)	23(51.1)	18(46.2)	89(28.0)
텔레비전	9(12.9)	23(14.0)	12(26.7)	10(25.6)	54(17.0)
휴식용소파	4(5.7)	5(3.0)	11(24.4)	3(7.7)	23(7.2)
화장대	7(10.0)	25(15.2)	16(35.6)	12(30.8)	60(18.9)
옷걸이	29(41.4)	99(60.4)	35(77.8)	20(51.3)	183(57.5)
기타악기류	8(11.4)	38(23.2)	16(35.6)	9(23.1)	71(22.3)

과 같은 적극적인 개조와 시각적 개방감을 주는 시설제거는 소극적 개조로 파악되었다. 구조변경 사례는 평면형에 따라 2BL 30.0%(21/70), 3BL 26.8%(44/164), 4BL 48.9%(22/45), 5BL 15.4%(6/39)이고, 시설제거 사례는 2BL, 3BL, 4BL, 5BL이 각각 22.9%(16/70), 14.6%(24/164), 31.1%(14/45), 17.9%(7/39)로 나타나, 전체 크기조정 사례는 4BL이 80.0%로 가장 높았

IV. 실조정 행태

거주자는 기존주택의 주공간속에서 생활하면서 부적합한 공간에 대해서는 거주자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시각적 개방이나 폐쇄 또는 공간의 확대나 축소 등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주거만족도는 높아지며 또한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4-1. 개조 행태

조사대상가구가 보여주는 크기에 대한 불만의 해결을 위한 조정행태는 크게 구조적 변경

6) 본 연구에서의 자녀실 가구실태는 <표 1>에서 자녀실로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2BL의 방2, 3BL, 4BL, 5BL의 방3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으며, 2BL(52.9%), 3BL(41.4%), 5BL(33.3%)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적극적인 개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2BL, 3BL, 4BL에서는 거실/베란다 벽부분(33.3%, 54.5%, 40.1%)이고, 5BL에서는 방/베란다 벽부분(83.3%)이었다. 소극적 개조 부분은 평면형에 따른 구분없이 베란다는 마루판설치가 가장 많아, 이는 서어비스공간의 실내 연장사용이나 시각적인 연장감으로 볼 수 있다.

표 6. 개조행태에 따른 크기조정 사례 빈도(%)

크기조정부분	2BL	3BL	4BL	5BL
적극적				
거실/베란다 벽부분	7(33.3)	24(54.5)	9(40.1)	1(16.7)
부엌/거실 벽부분	2(9.5)	1(2.3)	1(4.5)	
부엌/다용도실벽부분	3(14.3)		2(9.1)	
방/다용도실 벽부분	2(9.5)	4(9.1)	3(13.6)	
방/베란다 벽부분	5(23.8)	6(13.6)	7(31.8)	5(83.3)
부엌/부엌방 벽부분		5(11.7)		
부엌/식당 벽부분	2(9.5)	4(9.1)		
소계	21(100)	44(100)	22(100)	6(100)
소극적				
부엌/식당간막이 제거	2(12.5)	4(16.7)		
베란다 마루판 설치	11(68.8)	13(54.2)	11(78.7)	3(42.8)
실내 창고 제거		1(4.2)	1(7.1)	1(14.3)
거실 장식장 제거	3(18.7)	4(16.7)	1(7.1)	
거실 취미코너 제거				2(28.6)
현관/거실 문 제거			1(7.1)	
자녀실 벽장 제거		2(8.2)		1(14.3)
소계	16(100)	24(100)	14(100)	7(100)
계(사례수/전체가구수)	37/70	68/164	36/45	13/39

그러나 기존 구조에서 이미 불만의 부분을 개조한 경우에도, 현재 상태의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 현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개조요구 부분(7)을 조사하였다(표 7). 2BL은 부엌/거실 벽부분(29%), 3BL은 거실/베란다 벽부분(22%), 4BL은 부엌/다용도실 벽부분(33%), 5BL은 방/베란다 벽부분(13%)의 제거를 높게 요구하였다. 이는 기존 주공간의 물리적 크기에 대해, 공간확대를 원하는 요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주택규모가 작은 2BL은 부엌과 거실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어 L/DK형 보다는 LDK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 모든 평면형에서 외벽으로서 전용면적과 서어비스면적을 구획하는 벽을 제거하여 서어비스면적을 내부

7) 개조요구부분은 구조변경을 원하는 부분으로 예상되는 7부분을 전용면적 내에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개만선택하게 하였다.

공간화함으로써 단위평면규모의 확대를 바라는 경향을 가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조사례나 요구는 공동주택법에 규정된 안전수칙 및 규정에 따른 불법 개조행위⁸⁾로서 이러한 개조의 실행시 아파트의 노후화는 물론 구조안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표 7. 구조변경요구부분 빈도(%)

구조변경요구부분	2BL	3BL	4BL	5BL	전체
거실 베란다 벽부분	17(24)	36(22)	7(16)	2(5)	62(19)
부엌 거실 벽부분	20(29)	15(9)	3(7)	2(5)	40(13)
부엌 다용도실벽부분	7(10)	13(8)	15(33)	1(3)	36(11)
방 다용도실 벽부분	1(1)	10(6)		2(5)	13(4)
방 베란다 벽부분	6(9)	11(7)	2(4)	5(13)	24(8)
부엌 부엌방 벽부분	1(1)	8(5)		3(8)	12(4)
부엌 식당 벽부분	1(1)	9(5)	3(7)		13(4)
현재 만족	17(24)	62(38)	15(33)	24(62)	1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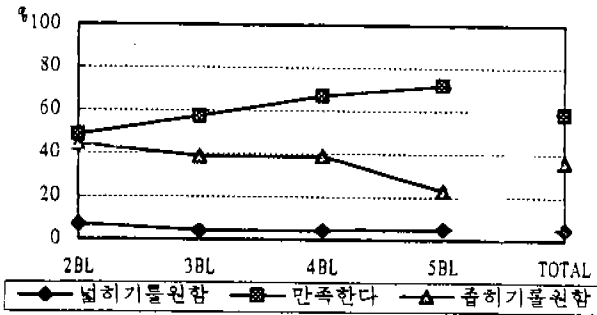
4-2. 크기조정태도

거주자들의 크기조정태도는 방1, 거실, 식당/부엌을 대상으로 평면형에 따라 조사분석하였다(그림 1). 모든 실에서 평면형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크기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크기조정 의사를 가지는 비율이 방1에서 41.5%, 거실에서 41.2%, 식당/부엌에서 64.8%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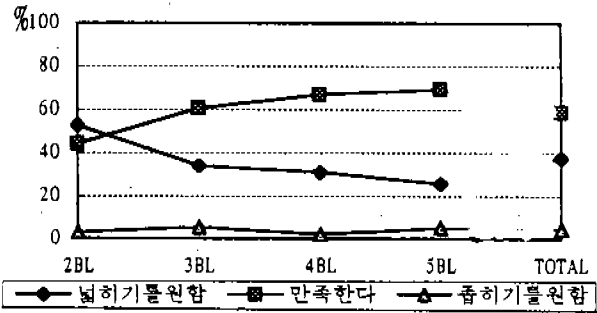
방1의 크기조정태도는 모든 평면형에서 현재보다 줄이려는 태도(36.5%)가 넓히려는 태도(5.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크기조정태도로는 '방1을 줄이고 그만큼 거실을 크게한다'(2BL:25.7%, 3BL:14.6%, 4BL:8.9%, 5BL:12.8%)와 '방1과 방2의 크기가 같도록 방1, 방2를 조절한다'(2BL:11.4%, 3BL:12.8%, 4BL:17.8%, 5BL:5.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실의 크기조정태도는 방1과는 달리 모든 평면형에서 현재보다 넓히려는 태도(37.0%)가 좁히려는 태도(4.5%)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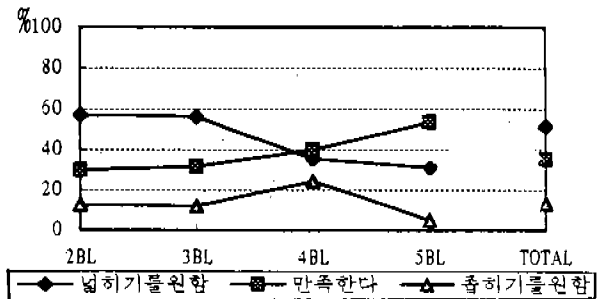
8) 공동주택관리법령, 김천경 편, 법륜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공동주택과 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1987



a. 안방의 크기조정 태도



b. 거실의 크기조정 태도



c. 부엌·식당의 크기조정태도

그림 1. 평면형에 따른 실별 크기조정태도

구체적인 크기조정태도로는 모든 평면형에서 '거실을 넓히고 그만큼 방1을 줄인다'(2BL: 30.0%, 3BL:21.3%, 4BL:11.1%, 5BL: 7.7%)로 나타났으며, 특히 5BL에서 '거실을 넓히고 그만큼 방2를 줄인다'가 10.3%로 나타나 부부침실로 사용되는 실에 대해 조절태도를

가짐을 볼 수 있다.

식당/부엌에 대한 크기조정태도는 현재보다 넓히려는 태도(51.6%)가 좁히려는 태도(13.3%)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크기 조정태도로는 '식당/부엌을 넓히고 그만큼 다용도실을 줄인다'(2BL:37.1%, 3BL:22.0%, 4BL:17.8%)와 5BL의 '식당/부엌을 넓히고 그만큼 부엌에 가까운 방5를 줄인다'가 17.9%로 나타나 넓히려는 태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4BL에서 17.8%가 '식당/부엌을 줄이고 그만큼 거실을 넓힌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평면형에 따라 실크기 조정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크기조정태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부실 사용을 보이는 방1은 현재보다 좁히고, 거실과 식당/부엌과 같은 가족공동공간에 대해서는 넓히기를 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방1보다는 큰 거실을 원함은 가족생활의 중심이 과거 안방중심에서 거실중심으로 되면서 공적공간에 더 넓은 공간확대 요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엌 가까이 위치한 방5의 축소요구는 실의 역할보다는 수납공간같은 취침 이외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부엌 가까운 방은 실보다는 수납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되는 평면형의 공간구성에서는 이러한 실에 대한 크기조정, 용도 변경 및 실의 수 조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집합주택의 실공간구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거주자행태연구로서 현 집합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주공간사용행태와 실조정행태를 평면형에 따라 실종적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평면형에 따른 각실의 사용행태 분석결과, 실의 필요 갯수라는 측면에서 거주 가구별 사용실수는 3BL을 기준으로 2BL은 면적계약

에 따른 실수 부족을 자녀실의 공동사용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4BL의 방4와 5BL의 방5는 여분의 방이라는 성격을 가짐을 파악하였다. 이때 동일한 평면형에서도 방1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에서 침실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보이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일한 주택규모라 하더라도 침실수를 달리 구성함으로써 거주가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구사용행태 분석결과 평면형에 따른 가구사용의 입식화율은 실종류에 따른 구분없이 평면형이 커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거실·부엌의 입식 가구 사용은 평면형에 따라 부엌보다 거실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도 평면형이 커짐에 따라 소파 1인용과 3인용, 그리고 탁자를 한 set로 배치하는 유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실의 전반적 가구사용에서도 나타나 평면형이 커질수록 가구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구로 파악된 것들이 규모가 커서 자녀실의 공간을 많이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자료가 평면형에 따른 자녀실의 크기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공간에 대한 개조행태는 주로 실 크기에 대한 불만의 해결을 위한 구조적 변경과 같은 적극적인 개조와 시각적 변경같은 소극적인 개조로 파악되었다. 실제 조정을 시도한 개조율은 평면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4BL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2BL(52.9%), 3BL(41.4%), 5BL(33.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2,3,4BL에서 거실/베란다 벽부분과 5BL의 방/베란다 벽부분으로 전용면적과 서어비스면적사이의 벽부분 제거를 통한 단위공간 규모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무분별한 개조는 아파트의 노후화와 구조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 주공간 구성에 대한 크기조정태도를 보면 평면형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보다는 전반적으로 부부실 사용을 보이는 방1은 현재보다 좁히고, 거실과 식당/부엌과 같은 가족공동공간에

대해서는 넓히기를 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생활의 중심이 과거 안방중심에서 거실중심으로 되면서 보다 넓은 공적공간에 대한 요구와,가사작업의 기계화·단순화 및 그에 따른 수납공간의 요구등으로 인해 여분의 방보다는 침실이외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실의 계획을 요구함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평면형에 따라 집합주택거주자가 서로 다른 주공간사용행태와 실조정행태를 가짐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거주가구가 가지고 있는 가구특성에 따른 개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거주자들의 행태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수암 등, "집합주택 단위평면유형의 고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4호, 1992.
2. 박길용, "우리나라 아파트먼트 단위평면의 전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2호, 1990.
3. 박인석 등, "주거만족도에 의한 주거환경의 개선 우선순위 분석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6호, 1993.
4. 심우갑, "집합주거 환경평가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권3호, 1986.
5. 우동주 등, "아파트 공간 변용면에서 본 거주자의 생활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2.
6. 이 훈, 주거환경의 체계적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문, 1985.
7.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8. 조성희 등, "집합주택 단위평면 디자인 결정 요소의 수리적 분석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권 4호, 1987.
9. 조성희, 허영숙, "부산시 집합주택계획의 기본방향설정을 위한 거주후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1호, 1994.